

한남미담

Vol. 25
2018 Summer



청춘

Samuel Ullman

청춘이란 인생의 한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이다
청춘은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이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일한 삶을 뿌리치는 모험심,
때로는 20세 청년보다도 70세 노인이 더 젊을 수 있다
나이 먹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꿈과 희망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려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영혼에 주름이 진다
고뇌, 공포, 실망에 의해서 기력은 땅을 기고
정신은 먼지처럼 되어간다

70세든 16세든 인간의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에 끌리는 마음,
어린이처럼 미지에 대한 탐구심,
인생에 대한 흥미와 환희가 있다
우리 모두의 가슴속엔 마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체국이 있다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와
힘의 영감을 받는 한 당신은 젊다

영감의 교류가 끊기고
영혼이 비탄의 눈에 덮여
슬픔과 탄식의 얼음 속에 갇힐 때
20대라도 인간은 늙을 수 밖에 없고,
고개를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이 책의 저작권은 한남대학교에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을 포함한 모든 내용은
저작권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또는 전제될 수 없습니다.

발행일 2018년 6월 **발행처** 한남대학교
발행인 이덕훈 **편집인** 정성진
취재·글 김대진, 장효진
제작처 한남대학교 입학홍보처 홍보팀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오정동)
www.hannam.ac.kr

CONTENTS



커버스토리

- 06 도전하는 한남인
김완기, 민재명, 신지원, 남태욱, 조수현

창업의 시대를 열다

- 13 교원창업기업 매출 전국대학 1위
대학창업지수 대전 1위 (국립대 포함)
14 '한남창업마실(창업촌)' 개소식 갖고 창업최강대학 첫발 내딛어
15 'CEO명함 갖기' 운동 펼쳐, 창업 재학생 10명 CEO명함 전달
16 미국 실리콘밸리로 떠난 '창업연수'
17 창업 현장실습으로 후끈 달아오른 남대문시장



새롭게 변모한 캠퍼스

- 18 인사례교양동
새로 조성한 공원
'Startup H2 Story' 카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대학

- 22 대학기관평가인증
23 고교교육기여대학 사업 선정
24 신입교원 연구비 800만원 지원
25 미래기획단 제4기 미국 실리콘밸리 벤치마킹
25 수업평가우수교원 표창

축제는 한남대가 최고

- 26 청림축제 이모저모



입시정보

- 30 한눈에 보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요강
32 학과소개 (건축공학과, 사회복지학과)
34 새내기 학생홍보대사가 전하는 캠퍼스 이야기
36 스승의 날 감사 엽서

한눈으로 보는 한남대

- 38 한남대를 숫자로 풀어보자

소통으로 대학의 경계를 넘다

- 40 대학 최초 학부모회 발족
사회복지기관장 초청 간담회
41 총장님과 함께하는 학생임원간담회
학과장 및 취업전담교수 간담회
2018학년도 신입생 학부모 간담회



한남이의 일상

- 43 경주개 최초로 한국 챔피언에 올라
43 월드도그쇼 휩쓸어 한국견 그룹 1등상,
동일 견종 최고상 등 모두 차지

HNU뉴스

- 44 주요뉴스
47 한남피플

기부, 그리고 사랑

- 48 여러분의 기부에 감사합니다

강간!
시도가 부끄러워!

학교는 실패를 응원했고 우리는 도전에 성공했다

남 태 욱
사회적기업
버터플라이임팩트 대표

김 완 기
글로벌디자인
아이디어랩 대표

신 지 원
주얼리 창업
엠투에스 대표

조 수 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前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민 재 명
대기업 투자 유치
안드로메다 대표이사



입대 전 9일의 시간이 열정의 불씨를 가질 기회가 되었어요

● 김 완 기 (디자인학과 12) 글로벌디자인 아이디어랩 대표
세계 3대 어워드 포함 37회 수상

‘꿈은 크게 가지되 자만하지 말며 자신을 믿고 도전해라.’

누군가에게 짧은 9일이 제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큼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입대를 앞두고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9일간의 3d프로그래밍 공부를 했어요. 입대 후에도 디자인 자료들을 보고 아이디어를 발상하거나 스케치하며 3d프로그래밍, 모델링 공부도 놓지 않았죠. 그러다 휴가를 이용하여 스파크 공모전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은상을 수상했어요. 이 상은 제 열정의 불씨가 되었답니다. 전역 이후에는 레드닷, 아이디어와 같은 상들을 연달아 받으며 꿈의 도전을 한 단계씩 더 높게 잡아 실천을 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제게 입대 전 9일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열정의 불씨를 가질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럼 더 큰 꿈들과 좋은 디자인들도 없었겠죠.

저는 한남대가 참 좋아요. 다양한 전공과 외적인 교육으로 인해 힘든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어 더 큰 생각을 할 수 있는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더 꿈을 크게 가질 수 있도록 믿어주는 곳이기도 하죠. 한남대는 저에게 도전의 무대가 되어주었어요.

대부분 그림을 잘 그리거나 그림이 재미있어서 디자이너의 꿈을 꾸게 된 경우가 많은 텐데요. 중·고등학교 때에는 주변의 칭찬과 인정을 통해 그 즐거움으로 그림을 그려왔지만 대학에서는 특기자들 속에서 평가를 받게 되죠. 그 과정에서 도전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많지만 그곳에서 받은 평가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과 디자인에 대한 평가로 답을 지을 수는 없답니다. 우리가 하나의 사물을 보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듯 단지 특정한 인물에게 그 가치를 평가 받았을 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의 디자인을 좋아해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줄 사람들 또한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고 도전하세요. 저도 그 도전자 중 한명이니까요.

제 꿈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디자인을 만들어 주는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에요. 길을 지나던 중 우연히 내가 만든 제품을 사용하고 ‘좋다’라는 평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디자인 같은 거요. 제가 디자인한 제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멋진 우주선을 타고 무시무시한 궤음과 함께 우주로 날아가 보고 싶어요

● **민재명**(문예창작학과 07) 안드로메다 대표이사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세 번 도전하면 이뤄진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세 번은 도전했어요. 신기하게 세 번째 도전하면 다 이뤄지더라고요. 1년차에 예선 탈락, 2년차에 면접에서 떨어진다면 3년차에는 합격하는 식으로요. 중요한 건 강한 투지와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집념이라고 생각해요.

부자가 되면 우주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사이름도 안드로메다로 지었죠. 아직 우주에 갈만큼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꼭 멋진 우주선을 타고 무시무시한 궤음과 함께 우주로 날아가 보고 싶어요.

가끔 대학생활의 좋은 추억들이 떠오르곤 해요. 문예창작학과 김완하 교수님은 학교 다닐 때 용돈도 주시고 책도 사주셨어요. 정기철 교수님은 유학을 알아봐주시고, 유학 중에는 가족들과 찾아오셔서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어요. 졸업 이후에도 교수님들께 자주 연락드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다른 대학에 다녔던 친구들에게 교수님 이야기를 꺼내면 정말 훌륭한 교수님이라며 감탄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남대는 저에게 부모님라고 할 수 있어요. 저를 사람 구실할 수 있게 키워줬거든요. 늘 감사한 마음이라 기회가 된다면 꼭 보답하고 싶어요. 한남대에서 배우고 성찰한 가치를 구성원들과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익지 않았답니다. 고개 뺏빔이 들고 함부로 고개 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겸손은 중요한 가치지만, 많이 경험하고 더 넓은 세상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도 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은 성취경험에서 나오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끊임없이 도전할 거예요. 우선 당분간은 대전에 머물면서 주위사람들도 챙기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지낼 생각이구요. 8월부터는 다시 새로운 도전을 위해 서울로 올라가려고 해요. 언제나 지금처럼 도전하고 열정적인 삶을 꿈꾸면서요. 여러분도 각자의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늘 응원합니다.

마치 꿈만 꾸던 나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 **신지원**(의류학과 14) 주얼리 창업 엠투에스 대표
남대문시장 브랜드메이커

'어느 곳을 가든 지금 있는 그 곳에서 길이 시작된다.'

작은 기회나 경험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발판삼아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저는 항상 변화를 꿈꾸곤 했어요. 그러다 마음속에서만 꿈꾸던 일들을 졸업 작품전이 끝난 후 실행에 옮기게 되었죠. 한남대학교 링크사업단에서 겨울에 실시했던 '창업연계형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남대문에서의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찾아보면 한남대는 학생들의 창업이나 취업에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창업 관련 교과목을 통해서 처음 창업의 꿈을 키우고 실제로 창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구요. 지방대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이 한남대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한남대는 제 꿈의 발판이 되어주었어요. 아직 꿈을 이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창업을 결심했던 순간부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까지 학교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마치 꿈만 꾸던 제게 날개를 달아준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사실 저는 학교생활의 가장 막바지인 4학년이 되어서야 창업과 관련하여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더 일찍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창업 관련 교과목부터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교에서 훈련을 마치고 사회에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남들보다 앞서나가는 창업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도 학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최근에 저희 엠투에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답니다. 바로 남대문 약세사리타운의 장점을 살려 직접 개발한 상품을 국외로 수출하는 것인데요. 내수 시장에 맞는 상품은 별도로 시제품 개발 중에 있구요. 앞으로 국내외를 아우르는 상품으로 주얼리 시장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회사로 거듭나고 싶어요.

새로운 목표는 3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제 이름을 알게 하는 것이예요

● 남 태 욱(문예창작학과 12) 버터플라이임팩트(주) 대표이사
UN SRC Singers 감사공로패

‘100번 고민해서 달라지지 않는 일이면 고민하지 마라.’

저는 사실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몸으로 움직여야 문제를 찾을 수 있고, 그 문제를 직접 풀어봐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생긴 좌우명이에요. 그 덕분인지 지금은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도전을 결심하게 된 것도 같은 이유였어요. 도전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 생각을 ‘실행’했던 것뿐이었지만 남들은 특별한 배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머리보다 발이 먼저 움직인 것이 배경이라고 하면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요즘 새로운 계획은 3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제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처럼 끊임없이 움직여볼 생각이예요.

한남대는 기회가 많은 곳이자 무언가 시도해보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제가 창업을 결심했을 때 주변 선배들의 도움부터 학교에서의 지원까지 굉장했죠. 개인적으로는 창업하기 정말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저는 창업지원단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요. 지원사업이 있을 때마다 ‘왜 지원하지 않느냐, 한 번 참여해봐라’ 하시며 정보도 알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곤 했어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도전의 기회도 열어주는 곳이 한남대만큼 적극적인 곳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한남대는 제게 꼭 발판 같아요. 제가 어디로 뛰고 싶을 때 더 높이 뛸 수 있도록 제 발을 지탱해주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혹시 주변여건이 안 돼서 꿈만 꾸고 있다면,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선배들이나 지인과 대학교 근처 술집에 가면,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해요. 그걸 왜 술집에서 이야기하죠? 술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해결이 되나요? 그러면서 현실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돈이 없는 자신의 상황을 왜 술집에서, 거리에서 푸념하는 걸까요? 그럴 시간에 파트타임 일을 하거나 일용직 일이라도 해보세요. 친구 4명에서 일용직 업무를 한 달 동안 하면 500만원이 넘게 모여요. 이정도면 친구들과 자신의 생각을 실현해보기에 충분한 돈 아닐까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보다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 조 수 현(전자공학과 02) 前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선임연구원
現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연구소 선임연구원

‘꿈꾸는 자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

카카오 이사회 김범수 의장의 좌우명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고, 발전이 없는 삶은 즐거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도전과 선택의 연속인 인생에서 꿈과 목표가 없다면, 끌려가는 살인 뿐이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보다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재학 당시엔 실패해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생각에 공모전, 특히, 논문, 사회공헌 프로젝트 등 흥미로운 일에 참여했어요. 공모전에서 16차례 연속으로 고배를 마시기도 했지만, 조금씩 보완하고, 좋은 팀원들을 만난 결과 이후로는 항상 수상을 할 수 있었답니다. 한남대는 아름다운 교정도 장점이지만, 그보다도 우수하고 친절하신 교수님이 기억에 남아요. 특히 전자공학과와 강철신 교수님이요. 마지막 학기에 교수님께서 짝막하게 해주신 이야기는 저에게 있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거든요. 이후로 대학원과 직장생활을 하며 수 많은 선택과 고민의 순간마다 교수님의 이야기는 저에게 등불이 되었어요. 또한 한남대는 제게 고향과도 같은 항상 그리운 곳이에요. 저는 학교에서의 배움을 토대로 꿈과 계획을 세웠죠. 새벽까지 학술정보관 지하에서 공부하면서 꿈을 꾸던 기억이 가장 그리워요. 삼성전자 입사 후에는 해외 컨퍼런스에서 우연히 저보다 어린 일본인 학생의 연구를 보고 충격을 받은 적도 있어요. 내가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후배들을 만나면 꿈을 꾸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꿈을 뛰어넘는 뜻을 세우세요. 여러분의 나이는 세상을 집어삼킬 뜻을 세우고 도전할 때입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29살에 삼성상회를 설립하였고,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26살에 자동차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으로 경제를 부흥시키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업보국의 뜻 때문이었어요. 만약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이 개인의 보신만을 생각했다면 오늘날 훌륭한 사업가로 기억되지 못했겠죠. 살면서 목표는 변할 수 있지만 꿈과 뜻은 변치 않길 바랍니다. 제 꿈은 아직 현재진행형이에요. 이 꿈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꿈을 세우겠지요. 그 꿈을 이루면 또 다시 새로운 꿈을 세울 거구요. 저도 제가 언제 지칠지 모르겠어요. 가는 곳까지 가보죠. 한 번, 한남대학교에서 장관이나 차관 나오지 말라는 법 있나요?

創業 Startup Village

AGE OF START-UP

창업의 시대를 열다

‘교원창업기업 매출’ 전국대학 1위 대학창업지수 대전 1위 (국립대 포함)

한남대가 ‘교원 창업기업 매출액(2016년 기준)’ 분야에서 전국 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 ‘학생창업지원금’ 분야에서도 전국 6위에 올라 창업최강대학의 위상을 높였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최근 발표한 ‘2016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본교의 2016년 한 해 동안 교원창업기업 매출액은 총 5억원으로 전국 대학 중에서 1위이다. 이어서 2위 협성대(2억 6,500만원), 3위 연세대(2억 1,900만원), 4위 서울대(1억 8,800만원), 5위 동아대(1억 2,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교는 ‘학생창업지원금’이 2016년 동안 30억 1,000만원을 기록해 이 분야에서도 전국 대학 중 6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해마다 실시하는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로 전국 422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덕훈 총장은 “우리 대학은 ‘창업최강’이란 슬로건 아래 대전 유일의 거점형 창업선도대학으로서 3년 연속 A등급 평가를 받았다”며 “교원창업 및 학생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한 획기적인 인프라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남대가 대전지역을 대표하는 창업대학으로 우뚝 섰다. 본교는 매일경제신문이 전국 218개 대학(4년제, 국공립 포함)을 대상으로 평가한 ‘2018 매경 대학창업지수’에서 전국 15위, 대전 1위에 올랐다.

매일경제신문은 매년 전국 대학의 창업인프라, 창업지원, 창업성과 등을 평가해 대학창업지수를 발표하는데, 6월 1일 발표된 2018년 종합순위에서 본교는 충남대, 한밭대 등 국립대를 제치고 대전 1위, 전국 15위에 올랐다.

이는 한남대가 최근 ‘교원창업기업 매출’ 전국 1위, ‘학생창업지원금’ 전국 6위(교육부 산학협력활동 조사결과, 2016년 기준) 달성에 이은 또 하나의 성과로 ‘창업최강’(Startup First) 대학을 추진해온 노력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교원창업기업 매출액
(단위 : 백만원)

순위	대학명	매출액
1	한남대학교	500
2	협성대학교	265
3	연세대학교	219
4	서울대학교	188
5	동아대학교	120



Startup First!

2018 매경 대학창업지수
한남대학교 전국 15위
대전지역 1위 (국립대 포함)

출처: 매일경제신문 전국 218개 대학 조사 (2018.06.01)





‘한남창업마실(창업촌)’ 개소식 갖고 창업최강대학 첫발 내딛어

한남대가 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한남창업마실(창업촌)’을 조성하고 지난 5월 4일 개소식을 가졌다.

A, B, C 3개 구역에 총 5개동, 31실로 구성되어 있는 한남 창업촌은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컨설팅·멘토링, 실전창업 공간으로 활용된다.

모든 건물이 2층 컨테이너 형태인 A구역은 203종 414권의 창업관련 도서 및 논문이 가득한 창업도서열람실을 비롯하여 예비창업자들의 아이디어 개발 및 모음이 가능한 8개의 독립공간을 설치했다.

B구역은 예비창업팀 30팀이 입주해 창업전문가와 컨설팅·멘토링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C구역은 B구역의 예비창업팀들을 위한 시제품 제작, 창업펀딩, 비즈니스모델 검증, 마케팅, 법률 등의 실무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한남창업마실(창업촌)’ 개소식에는 홍진동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이덕훈 총장은 “한남대가 창업최강 대학을 위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내일은 더 나은 실수를 하자란 모토를 갖고 학생들이 창업 실패를 두려워 말고 계속 도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진동 청장은 “한남대가 창업에 실패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에 감명받았다. 한남창업촌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청년창업 메카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CEO명함 갖기’ 운동 펼쳐, 창업 재학생 10명 CEO명함 전달

‘창업최강대학’에 도전하는 한남대는 지난 4월 13일, 창업한 재학생 10명과 함께 ‘CEO명함 갖기’ 운동을 펼쳤다. 참여한 학생들은 한남대 창업지원단의 창업동아리 소속 학생들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통업, 광고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했다.

이날 이덕훈 총장은 ‘CEO명함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창업 재학생 10명에게 각각 ‘CEO’명함을 직접 전달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학생들과 창업 애로사항 및 제안사항 등을 들으며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덕훈 총장은 “‘CEO명함 갖기’ 운동이 전교생들에게 확산되길 희망한다”며 “우리대학은 해마다 창업하는 학생이 늘고 있어, 향후 학생창업수 전국 10위권 이내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종합광고대행사인 ‘올댓애즈’를 창업한 권형주 학생(건축공학과 4)은 “총장님께서 직접 대표 명함을 주시니 감회가 새롭고 책임감이 더욱 든다. 향후 후배들이 창업활동을 하는데 다양한 경로로 도움을 주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남창업마실 관계자는 “학교 측은 학생들의 제안을 적극 수렴해 창업에 보다 적합한 환경과 교육 시스템을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교는 2015년 3명, 2016년 8명, 2017년 22명 등 해마다 학생 창업이 늘어나는 등 ‘창업최강대학’을 목표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 프론티어 장학생 26명, 미국 실리콘밸리로 떠난 '창업연수'

'창업최강(Start-up First)'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한남대가 학생창업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본교 재학생 26명은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로 창업준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에 앞서 이덕훈 총장은 학생들에게 '스타트업 프론티어' 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해외연수를 떠나는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한남창업마실(총장 이준재 교수)에서 주최한 '스타트업 프론티어 공모전'에 창업 계획서를 제출해 입상한 10개 팀 26명이다. 한남대는 이번 연수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포함, 학생 1인당 각 400만원씩, 총 1억 400만원을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했다.

학생들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위치한 실리콘밸리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페이스북, 테슬라 등 세계적 기업 및 벤처를 비롯해 스탠포드대학,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캠퍼스, 뱁슨 칼리지 등 창업에서 앞서가고 있는 대학들을 방문했다.

또한 플러그앤플레이, 콜럼버스 노바 테크놀로지 파트너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하 KIC실리콘밸리 등 현지 창업투자기관 및 유관기관을 방문해 창업특강 및 연수도 받았다.

연수에 참가한 양용준 학생(컴퓨터통신무인기술학과 3)은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 학교에 감사하다.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서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덕훈 총장은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및 글로벌 창업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배움과 영감을 얻고, 앞으로 창업에 대한 꿈과 도전을 성취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본교는 올해 5월 완공을 목표로 '청년창업캠퍼스 브랜드'를 키워낼 창업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며, 창업융합대학 및 한남창업마실 신설, 창업인프라 확충, 학사제도 개선을 통한 창업 친화적인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남대 학생들의 창업 현장실습으로 후끈 달아오른 남대문시장

한남대 학생들의 창업 열기가 서울 남대문시장까지 퍼지고 있다. 이에 2월 1일 이덕훈 총장을 비롯한 처·실장들이 대거 상경해 남대문시장에서 창업 현장실습 중인 학생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시장 상인 멘토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링크플러스 사업단에 따르면, 본교 재학생 11명이 올해 1월 2일부터 남대문시장 최대의 액세서리 종합상가인 삼호·우주상가에서 창업 현장실습을 진행 중이다.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한남 챌린저스 Start-up 성장하우스' 프로그램에 선발된 이들은 의류학과, 융합디자인학과, 회화과 등의 3, 4학년 학생들로, 겨울방학 2개월간 본교가 제공한 서울 숙소에서 매일 남대문시장으로 출근해 6시간씩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패션 의류 및 액세서리 분야의 창업과 문화예술 콘텐츠 및 서비스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남대문시장의 관련 점포에서 베테랑 상인 11명으로 구성된 멘토위원들의 1:1 멘토링을 받고 있다. 실제 창업 및 취업을 위한 실전감각을 익히는 동시에 상인 멘토단과 함께 창업캠프 진행, 창업 성공사례 특강, 사업계획 발표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점포 운영도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본교는 현장실습에 대해 6학점을 인정해주고, 실습비도 지원해주고 있다.

앞서 한남대는 남대문시장 상호주상가상인회(회장 성하준)와 학생 창업을 위한 공간을 무상 제공하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어 향후 학생들의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남대문시장에서 현장실습 중인 조윤수 학생(융합디자인 3)은 "오전에는 남대문시장 상인들과 현장에서 배우고, 오후에는 팀원들과 액세서리 브랜드 제작을 준비 중이다. 이곳에서 기획, 제작, 판매까지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할 수 있어서 보람도 있고 즐겁다"고 말했다.

상인 멘토위원인 최익순 씨(51)는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고 아이디어가 뛰어나서 기대가 크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덕훈 총장은 "우리 학생들이 국내 최대의 남대문시장에 진출해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며, 멘토링에 수고해 주시는 상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학생들의 창업과 취업 성공을 위해 학교에서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한남대는 학생들의 창업 활성화,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발전, 산학협력 등을 위해 서울 남대문시장을 비롯해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다.





인사례교양동



인사례교양동 내부

새롭게 변모한 캠퍼스

새로워진 캠퍼스를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캠퍼스의 중심에 위치한 인사례교양동과 새로 조성된 공원, 그리고 창업카페까지 최근 변화된 캠퍼스의 모습을 화보로 준비해 보았다.

인사례교양동

과거 법대 건물이었던 인사례교양동이 새단장을 했다. 로비와 화장실도 호텔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며 학생들의 인기도 높다. 1층에는 학교 직영 창업카페(Startup H2 Story)도 오픈하여 대학의 수익모델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 내세우고 있는 '학생제일! 창업최강!' 슬로건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다.



HANNAM DREAM
새롭게 오픈한 캠퍼스

새로 조성한 공원 학생제일, 창업최강 한남대는 학생들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창업 친화적인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가벼운 담소를 나누거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다.



Startup H2 Story Cafe

이미 교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H1 Story 카페의 이름을 따서 H2 Story로 짓고 창업을 강조한 Startup을 붙였다



HANNAM UNIVERSITY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대학

백년대계 [百年大計]
백 년 앞을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

한남대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 추진, 그리고 벤치마킹까지, 교육환경의 내실을 다지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중이다. 한남대의 100년 후는 어떠할까?



1 | 대학기관평가인증 All PASS

한남대가 지난해 12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이 주관하는 제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했다. 이에 이덕훈 총장이 본관 대회의실에서 신동호 대학기관평가인증 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증패를 전달받았다. 특히 본교는 이번 대학기관평가인증 30개 평가준거에서 '모두 충족(All PASS)'이라는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이덕훈 총장은 "30개 평가준거 모두를 충족한 것은 매우 괄목할 만한 결과이고,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대전충청권 1등 사립대학을 넘어서 전국을 대표하는 명문사학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학기관평가인증제는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로, 2018년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연계되고 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한남대는 2012년에 제1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취득한데 이어 이번에 제2주기 인증을 받았다.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는 대학교육의 지속적인 질 개선을 위해 ▲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 ▲교직원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등 5개의 평가영역과 10개의 평가부문, 30개의 평가준거로 구성된 평가기준에 따라 대학경영과 교육을 구성하는 제반 요소를 평가했다.

2 | 2018 고교교육기여대학 사업 선정

한남대가 교육부의 '2018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2018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된 곳은 전국 68개 대학이며, 대전권에서는 한남대를 비롯해 충남대, 한밭대 등 3개 대학뿐이다. 특히, 대전권 사립대 중에서는 한남대가 유일하고, 국비지원액 8억 700만원으로 국립대들을 제치고 대전권 1위를 차지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은 고교교육 내실화 및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남대는 2014년, 2017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선정됐다. 본교는 대학입시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운영, 중·고교와의 연계 및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학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간소화된 전형 체계 확립과 시민공정성 감시단(장학사, 학부모, 언론인 등)을 활용한 외부 모니터링으로 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높여왔다. 이와 함께 고른기회전형을 확대 개편하였으며, 고른기회전형 입학생에 대한 교육 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했다. 또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정보 소외지역 고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정성진 입학홍보처장은 "앞으로도 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공정성 제고 등을 통해서 우리대학이 고교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는 대학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3 | 신입교원 연구비 800만원 지원

한남대는 최근 3년 이내 임용한 신입교원들에게 연구비를 집중 배정해 새로운 연구 환경 조성 및 신진연구교원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임용된 1년차 신입교원 26명에게 총 2억 800만원(개인당 800만원 수준)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학술활동지원비, 교원연구년 7% 이내 선발, 창업연구년제도 신설 등 다양한 연구활동 제도를 운영 중이다.

논문 게재를 위한 학술활동지원비의 경우 SSCI(사회과학논문 인용색인), A&HCI(예술 및 인문학논문 인용색인)는 700만원,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450만원, SCIE(SCI확장판) 150만원, SCOPUS(세계우수학술논문 인용지수) 100만원, 기타 국제학술지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는 80만원이 지급된다.

이덕훈 총장은 “국내 대학 환경이 어렵지만 한남대는 연구의 중요성을 알고 교수님들의 연구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좋은 연구가 선행돼야 훌륭한 강의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4 | 미래기획단 제4기 미국 실리콘밸리 벤치마킹

미래기획단 제4기 결과 보고회가 5월 9일 대학본관 대회의실에서 이덕훈 총장과 처실장, 행정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4기 미래기획단은 교수 2명(화학과 정종진, 컨벤션호텔경영학과 김주향)과 직원 4명(입학관리팀 유영수, 장학팀 임영룡, 학사관리팀 김현민, 기획예산팀 안형준) 등 6명으로 구성돼 지난 4월 9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와 대학들을 벤치마킹하고 돌아왔다. 정종진 교수가 대표로 발표한 이날 보고회에서 미래기획단은 UC 리버사이드, 산호세주립대 등의 대학들과 실리콘밸리의 애플, 피닝, 스템셀 등의 글로벌 혁신기업을 방문해 얻은 정보 등을 소개했다. 특히, 본교의 창업최강 정책에 맞춰 실리콘밸리와 대학들의 학생 창업 열기를 전했다. 정 교수는 “실리콘밸리의 기업과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창업 경험 그 자체를 성공적인 스펙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같은 학생 창업의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도 창업 도전을 적극 펼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래기획단은 20~30대 젊은 교직원들을 중심으로 작년 6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해외대학으로 파견되어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새로운 전공 및 학사구조의 변화, 기부금 유치 등 재정확충 방안, 창·취업 현장실습 등 대학의 혁신과 성공사례 등을 조사한다.



5 | 수업평가우수교원 표창

지난 5월 정성균선교관 3층 예비실에서 '2017학년도 수업평가우수교원 표창'이 진행됐다.

이번 우수교원으로는 ▲이은하(국어국문창작학과) ▲진현웅(경영학과) ▲프렘 프라브하카란(항공신소재공학과) ▲손혜숙(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최윤희(〃) ▲김경훈(〃) ▲허윤기(〃) 등 7명이 선정됐으며 상장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됐다.

매년 진행되는 수업평가우수교원 표창은 정규학기 수업평가 과목평균(정량평가 50%)와 티칭 포트폴리오(정성평가 50%)를 합산해 선정하고 있다.



HANNAM Festival

2018 축제는 한남대가 최고

청림축제
이모저모



명불허전 한남대 청림축제 '대동제'가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대학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열린 '대동제'에는 총 6만 5천여 명의 관객들이 운집해 성공적인 축제로 막을 내렸다.

지난해 월드스타 '싸이' 못지않은 인기와 열기로 가득 찬 이번 청림 축제의 첫째 날은 힙합 뮤지션 '로꼬', '그레이'를 시작으로 둘째 날 '위너', 셋째 날 '자이언티', '10cm'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총 출동 하며 학업에 지친 대학생, 고등학생과 대전시민 등 모두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었다.

축제기간 한남대를 찾은 한 학생은 "이번 한남대 축제에서 공연한 가수들은 최고였다. 주변 친구들 역시 한남대 축제는 특별하고 다르다며 매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축제는 가수들의 공연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기획, 주류 판매 금지 등으로 모범적인 대학 축제라는 평을 얻었다.



이덕훈 총장님의 축하인사





모집 인원

2,429명



모집 기간

- ☑ 수시모집 원서접수
2018.09.10.(월) 09:00 ~ 2018.09.14.(금) 19:00
- ☑ 서류제출 마감
2018.09.10.(월) 09:00 ~ 2018.09.18.(화) 21:00
- ☑ 1단계 합격자 발표(학생부종합전형)
2018.11.09.(금) 17:00 이후
- ☑ 최종 합격자 발표
 - 학생부교과전형, 실기위주전형: 2018.11.09.(금) 17:00 이후
 - 학생부종합전형: 2018.12.07.(금) 17:00 이후

전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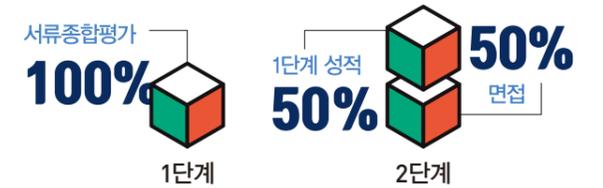
☑ 학생부교과

- 일반전형 • 지역인재교과우수자전형
- 고른기회(국가보훈, 만학도, 서해 5도)전형 • 특성학교출신자전형
- 농어촌(도서·벽지) 학생전형(정원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전형(정원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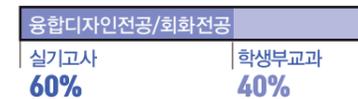
☑ 학생부종합

- 한남인재전형 • 지역인재전형
- 창업인재전형 • 다문화가정자녀전형
- 특성학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정원외)



☑ 실기위주

1 일반전형



2 체육특기자전형



3 디자인특기자전형



4 어학인재전형



☑ 학생부 반영 방법

1 지역인재교과우수자전형 외 모든 전형

- 석차등급(1~9등급)이 부여된 전교과 전과목 반영



2 지역인재교과우수자전형

인문(의류학전공 포함) - 12과목 반영(3개 학년 X 4과목)

• 필수(국어, 영어) • 선택(수학, 사회, 과학 중 2과목)

자연 - 12과목 반영(3개 학년 X 4과목)

• 필수(수학, 영어) • 선택(국어, 사회, 과학 중 2과목)

예·체능 - 9과목 반영(3개 학년 X 3과목)

• 선택(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중 3과목)

※ 교과반영방법 학년별로 1개 반영교과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1개 과목만 선택하여 반영

Department of Architecture

우리의 공학 실력과 상상력
Build The Future!
첨단 건축 기술의 미래를 여는

건축공학과



한남대학교 건축공학전공 학생들이 건축학회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7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개최한 대전·세종·충남 건축학회 경진대회에서 총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본교 건축공학전공 강경신, 박건우, 서종욱 학생(지도교수 이재승)이 시공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민은수, 박홍빈, 신종민 학생(지도교수 정성진)도 구조분야에서 은상을 수상하면서 한남대학교 건축공학과와 위상을 높였다.

건축공학과 학생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는 데는 건축공학과만의 커리큘럼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다. 본교 건축공학과는 2007년부터 공학교육 인증을 꾸준히 받아오면서 학과 커리큘럼을 더욱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다. 1학년에서 기초 수학, 일반 물리, 화학 등의 수업을 통해 전공기초지식을 탄탄히 다지고 이후 학년부터는 건축 환경, 건축시공, 콘크리트 구조역학, 캡스톤 디자인 등 건축공학에 대한 전문적인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이론과 실습의 결합을 통해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직접 적용해 보고, 졸업 후 현장에서 경험할 난관들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됐다.

건축공학과에 재학 중인 한 4학년 학생은 "이론만으로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은 실습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우리학과는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지도교수님과 함께 공모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다"며 장점을 소개했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과 연례행사로 두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경진대회는 물론, 견학(해외 및 제주 건축 견학, 건설 현장 등), 멘토-멘티 그룹 활동, 전공체험프로그램,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해비타트), 캡스톤 디자인 발표회 등이 해마다 진행된다.

현재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기업, 연구기관, 건설사, 구조설계사무소, 설비설계사무소, 건물관리회사, 자재회사, 건설사업관리 관련 회사, 부동산 개발 회사, 건축 관련 인증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평소 건물이나 건축분야에 관심이 많았다면 한남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오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Written by



김하영
학과홍보대사
(건축공학과 2)

<http://archi.hannam.ac.k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인간과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다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도전

사회복지학과



김정원
학과홍보대사
(사회복지학과 3)

사회복지사를 봉사자라만 생각하는 사회 인식이 있다. 그러나 정확히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인 및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전문적인 기술과 방법, 사회복지제도와 정책,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와 실천현장을 공부하게 된다.

본교 사회복지학과에는 대학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동아리 활동이 다양하다. 기관과 연계된 봉사동아리 '씨밀레', 공모전 및 프로젝트를 심화적으로 다루는 '하니', 수화동아리 '너나들이', 캠페인 및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잡지 제작을 하는 '까망신문사'가 대표적이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선배배간 친목을 다질 수 있어 굉장히 유익하다. 실제로 수화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공모전에 당선되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동문 선배님들을 매년 초청해 취업박람회 및 특강도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접할 수 있다. 선배님들의 입사과정과 해당 직업의 장단점, 실무경험을 통한 사례나 느낀점도 들을 수 있어 동기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 인생 선배로서 주는 조언과 가르침도 있어 마치는 시간이 아까울 때도 많다.

사회복지는 이론과 동시에 실무도 중요하기에 수업 외에도 봉사와 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여러 기관에 중사하고 계신 동문 선배님들께서 학과 사무실로 다양한 봉사를 전파해주시기 때문에 학우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봉사를 골라 신청할 수 있다. 봉사는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되도록 다양하게 접해보는 것이 좋다. 3학년은 본인이 기관에 신청하여 원하는 곳에서 실습을 하게 되며, 약 한 달 동안 기관에서 사무를 맡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봉사와 실습을 통해 협동과 미래적인 리더십을 강화하면 훌륭한 사회복지사로 거듭날 수 있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Written by



<http://welfare.hannam.ac.kr>



새내기 홍보대사가 전하는 캠퍼스 이야기

꿈꾸던 대학생활을 시작한 새내기들이 본 한남대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학교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인 박세훈, 박경선 학생으로부터 1학기를 마치며 새내기가 직접 보고 겪은 생생한 캠퍼스 이야기를 들어보자.

● 박 경 선 17기 홍보대사

안녕하세요. 저는 18학번이자 제17기 한남대학교 홍보대사인 박경선입니다. 새내기로서 어느덧 학교에 다닌 지도 3개월인데, 대학생활에 적응하면서 느낀 점도 많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처음 학교에 왔을 때에는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첫 수업을 시작할 때에 건물을 몰라서 헤매기도 했고 다른 학생들에게 길을 물어보며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건물이 많고 학교가 넓어서 처음 오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법대에 갔을 때에는 호텔 로비를 연상케 하는 인테리어와 학생들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카페처럼 만들어진 학생 쉼터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알파라는 큰 문구점이 있어 언제 어디서든 공책이나 학용품 등을 살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리고 한남대학교는 캠퍼스가 예쁜 학교로 불릴 정도로 캠퍼스가 아름다워 계절마다 다채로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린튼 공원에는 학생들을 위한 벤치와 테이블 등이 아주 많습니다. 그 옆으로는 오정못이 위치해 있는데, 지나가기만해도 청량해지는 기분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축제 부스를 열거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지쳤을 때쯤 린튼공원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나 플라마켓에 참여하면 지친 마음도 사라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바로 도서관이 위치하여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문서를 프린트 할 수도 있고 보고 싶은 책을 바로 빌려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학생식당도 있습니다. 한남대학교는 학생과 교수식당을 구별 짓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에 학식을 먹고 정말 놀랐습니다. 학교주변에 맛집이 많지만 굳이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종류도 다양하고싼 가격에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석식도 운영하고 있어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이나 자취하는 친구들에게는 집밥을 싸게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물만 해도 좋은 점이 많은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점은 수업이 정말 유익합니다. 여러 가지의 팀플레이나 직접 참여하여 하는 활동을 통해서 소외되는 친구들 없이 모두들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외에도 좋은 점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다니며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 세 훈 17기 홍보대사

한남대학교에 입학하여 처음 정문을 지날 때, 저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자유, 진리, 봉사가 쓰여 있는 황금독수리 탑이었습니다. 그 뒤편으로 한남대학교의 오랜 역사를 증명하듯 웅장하게 펼쳐진 나무들과 큰 길의 모습에 감탄하였던 것이 생각납니다. 봄이라는 계절을 몸소 표현하듯 학교 곳곳에 핀 벚꽃나무들로 캠퍼스의 아름다움은 한층 더 돋보였습니다. 대운동장은 축구경기장 정규 사이즈로 넓은 공간이어서 밤마다 동네 주민들이 와서 산책하고 아이들도 뛰어 노는 정겨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62주년을 맞이한 대학교답게 전통을 자랑하는 건물이 있는데 바로 선교사촌입니다. 선교사촌은 붉은 벽돌과 한국식 지붕으로 이루어져 서양식 건축에 한국식 건축이 도입된 독특한 형태입니다. 오랜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건물로 영화 덕혜옹주의 촬영장으로 이용되어 영화 속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신축 건물인 56주년기념관도 있습니다. 이 건물은 학생들의 편의시설이 모여 있어 한남대 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학생회관은 각 동아리의 동아리방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강 시간에 가입한 동아리방에서 쉬거나 선배들과 친목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중앙동아리 SOUL에서 많은 선배들, 동기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적극 추천합니다. 학기 초에는 신입생 환영회 '해오름제'를 통해 동기들과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다질 수 있고, 봄에 열리는 '벚꽃제'에는 축제의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재미난 행사가 가득합니다. 최근에는 '대동제'가 있었는데 많은 푸드트럭과 각 학과에서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여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보대사에서도 부스를 운영하여 활기를 더했습니다. 축제의 꽃인 연예인들도 초청하여 멀리서도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렇듯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 재미있는 캠퍼스 생활을 즐기고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비상하라, 한남대학교!





“선생님, 감사합니다”

엽서로 전한 마음

T H A N K Y O U

따뜻한 봄날이 한창인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한남대학교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교 은사님께 감사엽서 보내기 행사를 진행했다. 스승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이벤트는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이 있었다. 고교시절 은사님을 떠올리며 소중한 마음을 담아 쓴 엽서들이 선생님들에게 잘 전해졌기를 바라며 우수 엽서 몇 장을 한남드림에서 소개한다.

그림 엽서
Post Card



혜정샘 ♡

안녕하십니까? 히히 벌써 5월이네요! 졸업한지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졸업하기 전에 한알에 한 번씩 가겠다고 했는데 기뻐한 기쁨이만 하고 못 기뻐 죄송해요!
저는 쌤 덕분에 환하던 대학, 너무도 예쁜 캠퍼스에서 만족스러운 대학생활 하고 있어요 ㅎㅎ 쌤 덕분에. 진짜 너무 감사해요 ♡ 환하던 대학교에 온 것도 너무 좋고 덕분에, 쌤이 4년동안 공부 하였던 이 학교에서 제가 4년 동안 공부하게 되어서 너무 너무 좋아요. 2018년 올해, 좋은 입시결과, 좋은 친구들, 선생님을 만나 행복한 마음 쌤도 새로 만난 3학년 6반과 함께 행복한 기쁨 보내시길 기도할게요 ♡ 그리고 나중에 쌤하고 같이 교단에 설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모습으로 쌤 찾아뵙게요! ♡! 고3 양심으로 계속해서 힘드실텐데 그래도 저와 좋은 추억 많이 안드시고 힘내세요! 항상요 ~ 쌤 너무너무 감사해요 ~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

- 2018년 5월, 제자 진정 드림 -



보내는 사람 제자 남진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요정동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3 4 4 3 0

받는 사람 김혜정 선생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91번길 3
(부여고등학교)

3 3 1 6 0

그림 엽서
Post Card



공대 여신,
맛 아니 사범대
아이유 우리 쌤
너무 보고싶어요
수학. 꼭 좋아했어요 ♡

사랑하는 센세 ♡♥️ 줍니다. 선생님의
애제자! >>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담임 선생님이
바로 진아쌤이셔서 이렇게 편지 써요 데헛ㅎㅎ
저같은 학생 있나요? 선생님께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유머스러운 아이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없다면
제가 복락하겠습니다. 청소 시간, 수능 시간에
노래 부르고 춤추면 좋아해주실런 (절대 혼내신 적이
없었죠? ^^ 친사 진아쌤^^) 우리 센세 너무
보소 싶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떠세요?! 야가는
태어날 예정이신가요? 1반 애들이 "저의 딸은 딸
낳으세요 ~" 했을 때 살짝하셨던 게 기억나네요ㅋㅋ
ㅋㅋ 절대 그러면 안 될 텐데... 예쁜 아가이길♥️♥️
지~나가버린 저의 고등학교 생활의 시작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
준정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알려줘 티쳐ㅠㅠ♥️
한남대학교
방학에 1반 다시 모여유 ~~~~ 뽕><

보내는 사람 이주영 님

대전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3 4 4 3 0

받는 사람 이진아 선생님

충남 보령시 웅천면 웅천중학교

3 3 5 2 2

그림 엽서
Post Card



강상의 선생님

선생님! 건강리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안부안다 관련 건하기도 못하고 잊은 듯 보내왔는데.. 이렇게
한남대학교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선생님께 편지 쓰게 함^^
선생님의 격려에 힘입어 잘 해내고 있습니다.
처음 한달간은 어딘지 낯선 사이에서. 그리고
영어. 컴퓨터 등의 수업에 적응하는 참 애먹었습니다.
이제 그런 호소에 맞춰서 되고 개나리도 되어...
이름으로 불려서 되어가고 생기 없던 나무들이
초록빛을 더해갑니다.
뒤늦게 시작한 공부.. 안한리가 많지만
고양이 귀속의 학문의 폭은 넓혀가고
진정한 인생의 값은 갖는 것의 희미함이
폭넓은 아름다운 자취를 누리겠습니다.
평범 길재가는 초록처럼 러 라신만의
사랑에 더욱더 깊이있게 들으며가고 있습니다.
안녕히 쉬고 계시던 선생님께..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드림니다.

보내는 사람 대연 유성규 학생
칸타빌 A. 202동 101호

3 4 1 2 7

받는 사람 강상의 선생님
서울 경남구 거포동
경기여자고등학교

0 6 2 2 4



한눈으로 보는 한남대

한남대를 숫자로 풀어보자



HANNAM

재적생수 (2018.4.1 기준)

17,851

명

교수 (전임교원)

423

명

국책사업수주 건수 및 총 금액
최근 주요 20개 사업에서

약 890억

원

- 대전·충청 사립대학 1위
전국 44위(브랜드평판도)
- 교원창업기업매출 전국 1위
- 대학창업지수 대전1위(국립대 포함)



UNIVERSITY

신입생 모집인원

(2019학년도 기준)

2,866

명

221

명

직원 수



졸업생 수

10만

여명

(2017학년도 기준)

교환학생 수

파견 131명, 수용 109명 **총 240**명

해외자매대학 수

48국가 **256**개 학교



1인당 장학금

3,696,717

원

약 18억 6천만

원

기부금액 (2016년 3월 1일 ~ 2018년 6월 15일 기준)



캠퍼스 면적

509,535m²



잠실올림픽주경기장의 약 6.7배
(대덕밸리캠퍼스 및 글로벌캠퍼스 포함)

소통으로 대학의 경계를 넘다

1 / 대학 최초 학부모회 발족

한남대가 '학부모회(회장 전오숙)'를 발족하고 학부모들과 원활한 소통에 나섰다. 국내 대학에서 학부모회가 구성된 것은 이례적이어서 주목을 끈다.

본교는 4월 26일 한남글로벌센터 무어아트홀에서 학부모회 임원을 비롯해 학부모 50여 명과 학교 교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학년도 학부모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학교 현황 보고와 도시락 점심식사,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해외교환학생제도, 해외봉사활동, 장학금 및 학생복지 등에 관심을 보이고 학교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덕훈 총장은 "학생과 더불어 학부모가 행복한 한남대를 만들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겠다. 대학생활 4년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교와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부모회 진중길 부회장은 "대학에서 학부모회를 발족한다고 해서 생소했지만 그만큼 학교 측의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처럼 학부모들이 한남대와 함께 협조해 자녀들의 성장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본교는 앞으로 학부모회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면서 학생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2 / 사회복지기관장 초청 간담회

5월 17일 한남글로벌센터 무어아트홀에서 '2018 사회복지기관장 초청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덕훈 총장을 비롯해 신아원 중리종합사회복지관장, 광영수 관저종합사회복지관장, 석동신 대흥동이슈대안학교장, 임동승 만두레지역아동센터장 등 지역의 사회복지분야 기관, 단체, 시설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 앞서 도시락 식사를 하며 친교를 가진 후,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류 및 상호협력 증진에 대한 논의했다.

임동승 센터장은 "매학기 약 40여 명의 한남대 학생들이 아동센터를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줘서 큰 힘이 된다. 향후에도 한남대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덕훈 총장은 환영사에서 "한남대는 지역사회와 함께 봉사하는 글로벌대학이다. 이를 위해 대학 자체적으로 한남사회봉사단, 사회적경제지원단, 한남교육사랑 등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대학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본교는 지역의 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 30여 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장애체험 및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교육봉사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3 / 총장님과 함께하는 학생임원 간담회

4월 3일 한남글로벌센터 무어아트홀에서는 '총장님과 함께하는 전체 학생임원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이덕훈 총장을 비롯해 처·실장, 행정팀장이 참여해 윤성욱 총학생회장 등 학생임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함께하면서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대덕밸리캠퍼스 셔틀버스 확대, 일부 건물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 설비 증설, 학생취업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건의와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험기간 중 열람실 24시간 개방에 따른 학생편의를 위해 심야 귀가버스를 운영하고, 가로등 점등 시간 확대 및 셔틀버스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성욱 총학생회장은 "학생과 학교 간 소통의 장을 만들어 준 학교 측에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간담회가 애로사항 해결과 대학 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뜻 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대는 학생제일(Student First)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학생복지 증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4 / 학과장 및 취업전담교수 간담회

2018학년도 학과장 및 취업전담교수 간담회가 3월 15일 56주년기념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과장 보임장 및 취업전담교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교무연구처 주요 현안 및 당부사항, 취업·창업 활성화 대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덕훈 총장은 "학생들의 앞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과장 및 취업전담교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올해도 학생중심사고로 학생들과 많은 소통을 바란다"며 특히 중도탈락율 방지와 취업을 향상, 2018대 학기분역량 진단 등 교수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5 / 2018학년도 신입생 학부모 간담회

2월 23일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마친 뒤 한남글로벌센터 무어아트홀에서 신입생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제주도과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온 학부모 100여 명과 이덕훈 총장을 비롯해 학사부총장, 단과대학장, 처실장, 행정팀장 등이 참석했다. 뜨거운 참여로 예정된 1시간보다 30분을 넘겨서 진지한 대화와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덕훈 총장은 "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및 사회진출을 위해서는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했으니, 편안하게 질문과 건의, 제안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학부모들이 질문과 의견이 쏟아졌다. 주로 자녀들이 입학한 학과에 대한 궁금증과 MT 등 학생생활 문제, 진로와 취업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기숙사 확충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총장을 비롯해 학사부총장, 학장, 처실장 등이 해당 분야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통해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었다.

이덕훈 총장은 "타 대학보다 일찍 입학식을 한 것은 신입생들이 교수들과의 집중상담을 통해 짚개는 개강을 준비하고, 길게는 재학 중 학업계획과 진로를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며, 학부모님들은 이제 자녀와 한남대를 믿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챔피언’ 한남이의 일상

‘한남이’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지난해 애견훈련소의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한남이’가 올해도 학교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 부쩍 바빠진 한남이의 일상을 들여다보자.



경주개 최초로 한국 챔피언에 올라

한남대(총장 이덕훈)의 명물인 경주개(일명 동경이·천연기념물 제54호) ‘한남이’가 국제애견대회에서 1등을 차지해 화제다. 5월 19일 ~ 20일 서울 광진구 한국애견협회(KKC) 전용 행사장에서 열린 ‘2018 인터내셔널 도그쇼’에서 한남이는 ‘퍼피 조’(생후 9~12개월)와 ‘오픈 조’(나이제한 없음) 그룹에서 각각 1등(Best in Group)을 차지했다. 한남이는 지난 4월에 열린 한국애견협회 30주년 기념 월드도그쇼에서 차지한 1등 기록들을 합산해 협회가 인정하는 한국 챔피언 자격을 취득했다. 도그쇼는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해외 심사위원들이 참여해 개체 심사, 보행 심사, 성품 심사 등을 실시했다. 한남대는 “애견 전문가들이 경주견 한남이가 앞으로 아시아 챔피언과 인터내셔널 챔피언에 도전해 볼 만할 정도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한남대는 지난해 9월 한국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로부터 경주개를 기증받아 ‘한남이’로 이름 짓고 보살피고 있다.

월드도그쇼 휩쓸어 한국견 그룹 1등상, 동일 견종 최고상 등 모두 차지

4월 21~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한국애견협회(KKC) 30주년 기념 월드도그쇼에 참가한 한남이가 ‘한국견 퍼피’ 그룹의 1등을 차지했다. 또한, 같은 견종 중 최고에게 수여하는 BOB(BEST OF BREED)에서 4명의 해외 심사위원들이 모두 한남이를 1등으로 선정해 최고상을 받았다. 미국애견협회(AKC) 심사위원들은 “한국에서 천연기념물인 경주개를 본 것은 처음이다. 특히 ‘한남이’는 총명하고 낯선 사람한테도 친밀감을 나타내는 등 성품이 좋아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상임 핸들러(경주 K1독스쿨)는 “이번에 한남이가 처음 대회에 참가했는데 좋은 성적을 내서 기쁘다. 향후 ‘한남이’는 매너, 예절, 복종훈련 등 사회화 훈련을 통해 공식 반려견 자격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HNU NEWS

주요 뉴스

01 대전마케팅공사와 산·학협약 체결

한남대는 6월 5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최철규)와 MICE(전시·컨벤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본교 컨벤션호텔경영학과 학생들은 대전마케팅공사가 주관하는 전시·컨벤션·관광 등의 행사 현장에 참여해 MICE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02 한남대 직영 우편취급국 및 문서실 통합 오픈기념식 개최

한남대학교 우편취급국 및 문서실 통합 오픈기념식이 6월 5일 오전 인사례교양동 1층에서 이덕훈 총장을 비롯한 처·실장 등 학교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학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우편취급국과 기존 문서실을 통합해 학교 구성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03 유학생 기숙사(SIBLEY HOUSE_2) 준공식 가져

5월 30일 오전 11시 유학생 기숙사(SIBLEY HOUSE_2) 준공식을 가졌다. 교내 글로벌캠퍼스 인근에 건축된 이 기숙사는 지하 1층, 지상 6층(전체면적 약 2,290㎡) 규모로 46실(3인 1실)에 총 136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공동휴게실과 세탁실, 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신설되는 유학생 기숙사의 이름은 1964년 미국 남장로교 부부선교사로 본교에서 근무하며 선교활동을 한 Sibley(한국명 심우렴) 장로의 이름을 딴 것이다. 바로 옆에는 국제교류관(SIBLEY HOUSE_1)이 위치해 있어 외국인 유학생들의 글로벌 생활구역이 조성됐다.



04 '블루진(청바지) 데이'로 창의적 업무 추구

한남대는 5월 30일부터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블루진 데이'를 시행하고 있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블루진 데이는 매주 2번 수요일과 금요일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본교는 일과 삶의 균형 있는 조화를 뜻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 차원에서 수요 조기퇴근제도, 여름철 쿨비즈(Cool-Biz) 복장, 방학중 집중휴가제도, 캐주얼 워크 등을 시행하고 있다.



05 합동군사대학교와 '학점인정 및 학비감면 협약' 체결

이덕훈 총장과 합동군사대학교 조한규 총장은 5월 18일 오후 2학기부터 합동대의 학생장교들과 교관 및 교수가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최대 6학점을 인정해주고 등록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합동대의 학생장교(수료생 포함) 등은 학점 인정에 따라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에서 1개 학기 수료와 같은 효과로 석사 학위 취득에서 혜택을 보게 되었다. 양교는 또한 상호 교류증진 및 학술·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안보국방정책학 관련 교수 교류 및 공동연구, 양교의 학술세미나 초청 및 참석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06 한남사랑 '동행' 바자회 개최

5월 16일 교내 인사례교양동 'Startup H2 Story' 카페에서 학교 구성원들과 학교기업들이 참여하는 한남사랑 '동행'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바자회에는 외부 기업체를 비롯해 한남대의 가족 및 창업기업에서 참여해 생활용품, 화장품, 가구 등 총 60여 종의 제품을 기증받아 판매했다. 이번 바자회 기증물품의 총액은 약 1500만원 상당이다.



07 '2018 전통시장대학협력사업' 지속수행기관 선정

한남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2018 전통시장대학협력사업'의 지속수행기관으로 선정돼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협력대상 시장인 대전중앙로 지하상가의 '2018 특성화초걸음시장지원사업'을 지원하고 협력수행하기로 했다. 본교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5월부터 대전중앙로지하상가를 대상으로 전통시장대학협력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를 위해 SNS홍보활동, 새로운 CI, BI 개발, 상가제품의 수출, 의류코디북 제작 등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이 참여해 지하상가 활성화에 앞장섰다. 특히 중앙로지하상가 캐릭터인 '롤루랄라' 마스크트를 개발해 지하상가 방문객 및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08 융합디자인전공 학생들, 한남대 전용서체 개발, 특허출원

한남대 재학생들이 우리대학의 창의이념을 담은 전용서체를 개발 및 특허출원에 눈길을 끌고 있다. 융합디자인전공 4학년 최시은, 김성민, 임소은, 방승은, 서주희 등 5명은 대학의 교훈인 진리, 자유, 봉사를 인용해 전용서체인 '한남진리체', '한남자유체'를 개발, 특허출원을 마쳤다. '한남봉사체'는 현재 개발을 준비 중이다. 이 학생들은 지난 겨울방학에 한남대 링크플러스사업단의 융합형 캡스톤디자인에 참여해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모델링과 렌더링, 테스트 등의 작업과정을 직접 진행했다. 이미 특허출원과 전문가 검증을 거친 서체인 만큼 학교의 광고, 홍보제작물 등 다양한 매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09 비즈니스통계학과, 한국전자거래학회 아이디어 공모전 은상

한남대 비즈니스통계학과 학생들이 4월 28일 중앙대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융합환경과 미래혁신성장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비즈니스통계학과 소속 김민식, 김희원 학생은 한국전자거래학회와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LG CNS가 공동주최한 이 대회에서 '블록 체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학생부도입 방안'이란 아이디어를 제안해 은상(2등)을 차지했다.



10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산·학·관 협력 협약식

한남대는 3월 15일 오후 2시 본관 대회의실에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산·학·관 협력 성과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우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사업 협력과 글로벌 협력 공동연구 및 사업화지원연계 기술개발의 상호협력 등에 대해 약속했다.



11 한남대 '사회적경제지원단' 설립, 개관식 개최

한남대가 대전·충청지역 대학 최초로 '사회적경제지원단(단장 이덕훈 총장, 이하 지원단)'을 설립하고 3월 13일 개관식을 가졌다. 지원단은 앞으로 '청년 사회적기업' 배출, 지역특화형 협동조합 육성, 다문화지원사업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전통시장 협력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공유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게 된다.



12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한남대는 3월 6일 오전 10시 본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회장 박미숙)와 산·학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및 사업화 수행, 전문 인력 양성 및 경영기술 정보의 공동 활용, 산학협력 위탁, 수탁 교육 등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13 컨벤션호텔경영학과, 한국관광공사 'Youth Convention사업' 선정

한남대 컨벤션호텔경영학과는 지난 3월 한국관광공사에서 'Youth Convention사업'으로 공모한 전국단위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3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본 사업은 MICE 예비인력의 컨벤션 산업에 대한 이해 및 현장경험 기회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컨벤션 개최역량 증대를 통한 글로벌 MICE 개최지로서의 도약 필요성에서 추진되었다. 컨벤션 예비인력 대상 실무 경험 제공을 통한 일자리 연계 효과를 증대하고, 지역의 국제회의 개최 기반 강화를 통한 MICE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14 KAIST 'Business Plan-A-Thon'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한남대 서현웅(경영학과 3), 김나은(디자인학부 3) 학생이 KAIST 기술창업교육센터에서 주관한 'Business Plan-A-Thon' 경진대회에 참여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학생들은 본교 LINC+사업단 교과목인 '글로벌캡스톤디자인'을 수강해 같이 팀을 꾸려 이번 공모전에 참가했다. 학생들은 한국뷰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베트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베트남에 화장품 관련 솔루션 플랫폼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이번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HNU NEWS

한 남 피플

01 학교법인 대전기독교학원 제22대 이사장에 우영수 목사(서교동교회 담임목사) 선출

6월 15일 대전기독교학원은 제188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장에 우영수 목사를 선출했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7월 24일부터 시작된다. 우 목사는 한남대 영어영문학과와 장로회신학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맥코믹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서기, 사회·봉사부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총회 역사위원장과 온생명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02 이덕훈 총장, 제30대 대한경영학회 회장 취임

이덕훈 총장이 1월 16일 제30대 대한경영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18년 1년간이다. 대한경영학회는 7,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문사회분야 국내 최대의 학회로 연구재단 등재지인 '대한경영학회지'를 매월 출간하고 있다. 또 일반경영학은 물론 호텔경영학, 의료경영학 분야의 연구와 학술조사, 국제심포지엄 및 세미나, 산업계와의 교류 등을 수행하고 있다.



03 건축학과 강인호 교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건축학과 강인호 교수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각 부 장관(11명)과 민간위원(교수 10명,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본 위원회는 우리나라 건축 및 도시와 관련한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다양한 사업과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고 정책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04 이영식 교수, 교육부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추진' 자문위원 위촉

영어교육과 이영식 교수가 2월 20일 교육부로부터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추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18년 2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05 정성은 교수, 대학특성화사업 유공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생명시스템학과 정성은 교수는 1월 30일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이번 '2017년 대학 특성화사업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 정 교수는 대학특성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06 화학과 이승호 교수 한국분석과학회 회장 취임

화학과 이승호 교수가 한국분석과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18년 1년간이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한국분석과학회는 화학, 환경, 재료, 약학, 농학, 보건, 식품, 화공, 법과학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분석전문가들이 모여 학문 및 분석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기부, 그리고 사랑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본교 퇴직직원이 1일 1천원씩 모아 7년째 학교발전기금 기탁

하루 1천원씩 모아 7년째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하는 퇴직직원이 있다. 지난 2011년 8월 30일, 정년퇴직한 김영수 씨(70·전 사무처장)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매일 1천원씩, 해마다 36만 5천원을 기탁하고 있다. 김 씨는 “항후 한남대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일천회’란 공동체를 만들어 1일 1천원 모금을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발전기금 3억 3,000만원 기탁

KB국민은행이 12월 27일 본교에 대학발전기금 3억 3,000만원을 기탁했다. KB국민은행은 2012년 본교와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한남대출장소를 개설하고 매년 대학발전기금을 기탁하고 있다.



이수민 명예교수, 발전기금 500만원 기탁

이수민 명예교수는 5월 9일 총장실을 방문해 이덕훈 총장에게 발전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 교수는 시각 장애인으로 세계적인 화학자 반열에 오른 인간승리의 주인공이다. 국제학술지에 1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세계 3대 인명사전인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미국인명정보기관(ABI)에도 등재됐다.



한남대학교교회, 발전기금 3,500만원 기탁

한남대학교교회(담임 조용훈 목사)가 1월 5일 본교에 발전기금 3,500만원을 기탁했다. 조용훈 목사와 교인들은 이날 총장실을 방문해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조 목사는 “대학교회 구성원들은 학생과 교인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데 노력하고 더불어 한남대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맥키스컴퍼니 박근태 사장,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지역 향토기업인 (주)맥키스컴퍼니 박근태 사장(경영학과 졸업)이 2월 8일 본교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박 동문은 “약소하지만 모교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동문들과 함께 한남대의 위상을 알리고 모교를 위해 더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기독교학원 신정호 이사,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본교 학교법인인 대전기독교학원 신정호 이사가 3월 30일 대학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 신 이사는 기탁을 약정한 3,000만원 중 이날 1차로 1,000만원을 기탁하며, “어려운 대학의 환경이지만 성장·발전하고 있는 한남대에 작은 힘과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영·국방전략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박경용 원우회장,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경영·국방전략대학원 최고경영자(CEO)과정 52기 원우회장인 박경용 대표(주)동인)가 4월 9일 대학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 박 대표는 “학교와 대학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원우들과 CEO과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눔의 실천

여러분의 기부에 감사합니다.

2017.11.22 ~2018.05.31

대학발전기금명단

성명	기부금액	성명	기부금액	성명	기부금액	성명	기부금액
(주)EC21	5,000,000	김용태	119,047	박선희	300,000	오연철	600,000
(주)동인플러스에스	10,000,000	김원규	119,047	박세근	199,800	유승연	700,000
(주)엠에스비전	3,000,000	김은혜	799,800	박완용	600,000	유엔약품주식회사	8,000,000
(주)위디어	3,333,000	김인섭	550,000	박용서	365,000	유영돈	2,000,000
(주)이노템즈	7,000,000	김정곤	119,047	박은주	300,000	유영수	300,000
(주)이랜드스포츠	4,050,000	김중문	199,800	박재원	100,000	유지은	208,110
(주)창신정보통신	5,000,000	김중오	119,047	박종숙	499,800	유혜숙	720,000
(주)케이앤에스아이앤씨	5,000,000	김중필	119,047	박종철	600,000	윤국노	119,047
(주)코람코자산신탁	10,000,000	김중필	300,000	박진숙	550,000	윤덕환	900,000
K2대전유성점	5,000,000	김진일	119,047	박진우	200,000	윤선미	300,000
YTN	975,942	김진호	300,000	박철수	499,800	윤연수	119,047
강봉수	300,000	김창국	199,800	박현선	300,000	윤영석	199,800
강전의	600,000	김창완	119,047	박형진	199,800	윤인영	600,000
강철신	10,150,000	김철회	800,000	박효균	300,000	윤천석	300,000
계재광	119,047	김태규	1,200,000	박희진	600,000	은웅	600,000
고상범	300,000	김태동	119,047	배기준	200,000	이경용	400,000
고은숙	199,800	김현민	240,000	변봉규	550,000	이경한	300,000
고창룡	500,000	김형섭	178,380	변상형	500,000	이계길	119,047
곽건홍	400,000	김혜숙	600,000	변지현	119,047	이계천	600,000
곽노일	600,000	김흥기	300,000	사희민	719,047	이길섭	119,047
광주일곡병원	2,000,000	김흥진	119,047	서명화	1,300,000	이달	10,000,000
권선영	486,000	나경옥	90,000	서영성	300,000	이덕훈	5,119,047
권세혁	1,800,000	나세일	300,000	서영숙	600,000	이미라	490,000
권순재	300,000	남승숙	119,047	서재홍	119,047	이상우	119,047
권인기	799,800	남충희	300,000	설성수	4,500,000	이수민	5,000,000
김건주	230,000	남태욱	200,000	성인하	300,000	이수정	208,110
김건하	500,000	노인석	600,000	성일석	1,000,000	이승철	1,276,200
김경자	300,000	대전성남교회	700,000	손대락	300,000	이영준	119,047
김경태	68,110	대전영락교회	10,000,000	손호영	832,800	이용규	300,000
김기애	300,000	도서출판현문사	1,000,000	송성범	199,800	이용기	150,000
김동원	5,000,000	문승일	500,000	송수영	600,000	이용택	300,000
김명준	1,200,000	민선기	160,000	송정현	1,000,000	이원근	200,000
김병진	119,060	민유미	240,000	신동호	2,460,000	이원진	300,000
김석수	498,000	민재명	200,000	신명희	119,047	이원현	300,000
김선녀	499,800	박경량	550,000	신민철	119,047	이은권	2,000,000
김성용	119,047	박경범	119,047	신항수	1,000,000	이인수	669,047
김성철	600,000	박근태	10,000,000	신윤식	3,000,000	이인숙	600,000
김수미	300,000	박길철	719,047	신태수	119,047	이일근	330,000
김승준	500,000	박동교	119,047	신한동	600,000	이장순	300,000
김영민	550,000	박문식	300,000	신형근	486,000	이재승	119,047
김영은	199,800	박민규	815,000	심우건	300,000	이정섭	20,000
김영태	300,000	박병화	1,200,000	안기석	300,000	이제현	719,047
김완기	200,000	박병희	2,000,000	안형준	60,000	이종우	119,047
김용관	600,000	박상희	240,000	오승재	1,000,000	이종윤	600,000

나눔의 실천

여러분의 기부에 감사합니다.

2017.11.22 ~ 2018.05.31



대학발전기금명단

성명	기부금액	성명	기부금액	성명	기부금액	성명	기부금액
이주섭	300,000	전월진	208,110	최문하	300,000	한남하이텍	8,112,000
이주현	800,000	전제상	600,000	최성규	600,000	한상동	300,000
이진모	400,000	정규진	1,200,000	최성숙	200,000	한상민	3,499,800
이진아	550,000	정기철	869,047	최성호	119,047	한상수	119,047
이진의	300,000	정명혜	300,000	최순용	550,000	한학진	1,000,000
이찬구	150,000	정성은	669,047	최시내	199,800	함현석	240,000
이희영	419,060	정영태	1,000,000	최영근	990,000	허인욱	400,000
임경목	300,000	정재완	600,000	최욱	199,800	허찬영	119,047
임동은	499,800	정재환	466,200	최윤경	200,000	형진의	119,047
임송옥	350,000	정지용	150,000	최의인	119,047	홍혜진	350,000
임영룡	199,800	정혜신	550,000	최장우	600,000	황선남	300,000
임원철	298,380	조남춘	600,000	최종근	300,000	황요성	10,119,047
임천석	300,000	조수현	200,000	하사라	300,000	황의정	2,600,000
장명호	499,800	조용훈	2,000,000	학군단(54기)	1,456,900	황주상	200,000
장성숙	300,000	조인기	600,000	학군단(55기)	1,963,960	황진영	300,000
장수	300,000	조재흥	300,000	학군단(56기)	914,560	황철호	300,000
장은자	750,000	조현일	300,000	한가숙	300,000		
재경동문화	2,000,000	조형호	399,600	한규웅	550,000		
전문수	5,000,000	천혁진	300,000	한남대학교회	20,000,000	총계	284,056,562

대학발전기금명단 (한남사랑 후원의 집)

성명	기부금액	성명	기부금액	성명	기부금액
(주)건풍바이오	348,110	베스트현수막	58,380	조신자	208,110
(주)바이오피에스	1,200,000	보자르드쉐프 56	248,650	참선진 녹즙	178,380
(주)올웨이시스(썸데이)	698,110	본도시락 한남대점	698,110	청정원식당	208,110
(주)프로테인웍스	348,110	스바라시라멘 한남대점	59,460	카쿠레바	118,380
(주)황산옥	208,110	스위트베이징	348,110	카페드림	208,110
강경숙	298,380	심진용	149,190	컴스광고사	178,380
강태현	350,000	아루마루	78,920	킴스	208,110
권용순	149,190	옥천순대	178,380	킴스힐	398,920
금수강산	348,110	우시장	89,190	태성기획	350,000
김종환	248,650	유진현	348,110	풍년삼계탕	208,110
김창수	138,110	육교회관	138,110	하늘물고기	248,650
대전식당	148,650	육상목	348,110	하늘정원	208,110
대전현플라워	248,650	이철용	198,920	형제횃집	248,650
맑은골 호박꼬지	348,110	이화수(용전점)	348,110	황의정	398,920
박동진	198,920	임은정	348,110	황해면옥	348,110
박상진	198,920	재벌공인중개사사무소	348,380		
박성언	149,190	전부영	148,650	총계	13,977,370
박진순	348,110	전소희	150,000		

기부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과 권리



본교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 및 학교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합니다.

- 기금의 기여도와 기부하신 분의 의사에 따라 건물 또는 건물 내 특정 공간의 명칭을 명명하실 수 있습니다.
- 출연하신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소득세 및 법인 세제혜택을 위하여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기부자 명단은 소식지,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에 공지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발전기금 참여방법

- **방문납부**
학교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전기금을 기탁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본관 1층에 위치한 발전기금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 **급여공제**
본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기부 하실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부(Tel. 042-629-7502~3, 8099)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 **무통장입금**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개설한 한남대학교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사람'란에 본인의 이름을 적어 주시고 전화로 입금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710401-00-002814 / 예금주 한남대학교]

한 남 사 랑
후원의 집
Hannam Supporters

대학과 지역사회가 서로 상생하는 “한남사랑 후원의 집”

어려운 경제 환경의 여건 속에서 한남 가족기업 및 지역의 상가들과 연계하여 서로 상생하는 새로운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환경에서 대학발전기금 모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남사랑 후원의 집’은 약 500여 개에 이르는 한남 가족기업의 네트워크와 학교 주변의 상가 그리고 본교 교직원 및 특수대학원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상생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대학환경개선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후원의 집’의 특별한 혜택

- 제휴업체에게는 “한남사랑 후원의 집” 액자를 제작하여 드립니다.
- 5천만원 이상의 대학발전기금을 약정 또는 기부하는 제휴업체의 직계 가족이 본교 또는 대학원 진학 시, 장학금 및 학비감면의 혜택을 드립니다.
- “한남사랑 후원의 집” 제휴업체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5백만원 이상의 발전기금 유치 시, 「대학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발전기금 유치액의 5%를 성과급으로 지급 (1건당 최고한도액은 5백만원이며 성과급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

